

考古學誌 발간규정

제정 2018. 9. 21.
일부개정 2021. 2. 15.

제1조 (학술지명)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에서는 정기학술간행물인 『考古學誌』(이하 ‘고고학지’라 칭함)를 발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고학지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고고학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원고의 분야)

- ① 고고학지에 게재하는 원고는 고고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하되, 국립중앙박물관(소속박물관 포함)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자료 소개, 발굴조사 보고, 서평, 전시 비평, 학술대회 및 강연 자료와 같은 기타 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고고학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 ③ 원고의 투고 요령과 작성 방법은 별도의 『고고학지 원고투고규정』을 따른다.

제4조 (발행)

매년 12월 20일 연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고고역사부장 및 고고학 전공 학예연구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고역사부장이 맡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고학지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
 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
 3. 고고학지 발간과 관련된 기타 운영에 관한 건
-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고역사부장이, 부위원장은 고고학지 발간 담당 학예연구관이, 편집간사는 고고학지 발간 담당 학예연구사가 맡는다.
- ② 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박물관의 연구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고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고학지의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 심의 및 결정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 ④ 편집위원회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⑤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불참 시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심사)

- ① 고고학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

- ② 원고가 고고학지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고고학지 원고심사규정』을 따른다.

제8조 (연구윤리)

원고 필자 및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원고 필자

1. 필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원고에 제시 하여서는 안 된다.
2. 필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4. 투고 원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②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2018.9.21.)

1. 본 규정은 고고학지 제24집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2.15.)

1. 본 규정은 고고학지 제27집부터 적용한다.(일부개정 2021.2.15.)